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

모두 잠든 밤, 공을 나오다

통상적으로 사냥꾼이라고 하면 우리는 짐승의 가죽을 몸에 걸친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사냥꾼으로 모습을 바꾸고 어울리지 않게 가사를 걸친 정거전의 변신은 너무나 생동감이 보인다. 하지만 신이 하는 일은 아무리 영통해도 이유가 있는 법, 정거전의 대답은 결자 중의 결자이다.



신화 김영수

말 한마디로 천금의 복을 짓게 하고 허공에 광명을 쏘아 상사로움을 만든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은 옛날 모든 부처님의 표식인데 어찌하여 이 옷을 입고 살생이라는 죄를 짓는 행동을 하십니까?”

일부러 저 먼 세계의 하늘로부터 부처님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사냥꾼으로 변신을 한 정거전이 아니냐. 이 시간만을 기다린 그의 대답은 정말 기상천외하다.

“내가 가사를 입은 이유는 여러 사슴들을 유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가사를 입고 있으면 사슴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기 때문에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사냥꾼의 말을 들은 부처님이 대답한다. “만약 당신의 말과 같다면 가사를 입고 있는 이유는 다만 사슴을 죽이기 위함이지 해탈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나의 보배 옷과 당신의 옷을 바꾸겠소. 나는 이 가사를 입고 일체 중생을 거두고 구제하여 번뇌를 끊고자 합니다.”

살생의 업을 없애고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옷을 바꾸어 입겠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이 선업으로 바뀌어 차곡차곡 쌓인다. 정거전은 이제 공 밖을 나와 세상을 방랑하게 될 부처님을 위해 미리 말 한마디부터 천금의 복을 짓도록 유도를 하는 셈이다.

가사를 입음으로써 사슴을 유인할 정도로 교활한 사냥꾼은 교과서 같은 부처님의 말에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고 흔쾌하게 옷을 바꾸어 준다. 처음부터 입으로 복을 짓고, 옷을 주기 위해 내려왔으니 그의 역할은 이제 끝난 것이다. 동시에 정거전은 부처님께 처음으로 가사를 드린 공덕을 짓게 된 셈이다.

옷을 벗어 준 정거전은 허공으로 올라가 하늘로 돌아가면서 원래의

자신인 신으로 몸을 바꾼다. 정거전이 허공에서 몸을 바꾸자 동시에 하늘에서 기이 광명이 솟구쳤다. 이 광명은 그때까지도 부처님께 다시 공으로 돌아갈 것을 예원하던 마부 찬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정거전의 행동은 다분히 의도적이었고, 경제적이었다. 그는 무사히 부처님과 옷을 바꿔 입었을 뿐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 자연스럽고 허공에 광명을 쏘아 상사로움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정거전, 고행을 끝낸 부처님을 위해 수자타에게 우유죽을 공양하도록 하다

그 후로도 정거전의 활약은 계속된다. 그의 가장 큰 공덕은 맨 처음 부처님이 출가했을 때 옷을 바꾸어 입음으로써 가사를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6년간의 고행을 끝낸 부처님이 기력을 회복하고자 했을 때 수자타로 하여금 공양을 드리도록 한 것이다. 부처님이 목욕을 하는 동안 소치는 목욕의 딸, 수자타 앞에 나타난 정거전은 여인 앞에 우유죽을 만들어 낸 뒤, 부처님께 바치라고 말한다. 시기적절하게 음식물 공양을 받은 부처님은 또 한 번 커다란 원을 세우고 죽을 드신다.

“나는 일체 중생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이 음식을 받는다.”

의식주(衣食住) 가운데 의(衣)와 식(食)을 담당할 정거전의 차례가 지났을 때, 드디어 주(住)를 해결해줄 주인공 제석천왕이 등장한다.



조민지 작가 · 칼럼니스트

수십 년 법문마저도 책에 담아 공양 올립니다

제5대 포교원장 퇴임한 혜총 스님의 법문집 '공양올리는마음' 출간



공양올리는마음  
혜총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1만3000원

11살에 동진출가한 前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율종 진작을 통해 한국불교를 중흥시킨 자운 스님을 40년간 시봉했다. 큰스님 시봉을 통해 하심을 체득한 혜총 스님은 모든 이에게 자비로울 수 있었고 스님으로 하여금 크고 작은 자비를 전하는 일을 하게 했다. 부산불교사회복지협의회, 용유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이사장, 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 부산불교청소년기독교협의회장 등 혜총 스님이 지냈거나 머물고 있는 직함들이 그 예이다.

뿐만 아니라 스님은 대한불교신문을 창간했다. 불교문화재단을 위해 실상문화상 외 5개 대상을 제정한 것도 스님의 따뜻한 마음과 포교 원력에서 비롯됐다. 스님의 포교 원력은 조계종 포교원 제5대 원장 소임 동안 더 널리 회향됐다. 혜총 스님의 포교 원력이 말과 글로 오롯이 담긴 책, 법문집 <공양 올리는 마음>이 출간됐다.

책에는 부처님이 중생에게 대가설법 하듯 각계각층의 사람들 근기에 맞춘 주옥 같은 말씀들이 풍부한 예화와 함께 실려 있다. 대중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혜총 스님의 밝고 따스한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는 책을 읽다보면 혜총 스님이 바로 곁에서 조근 조근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생생한 법문은 페이지마다 넘쳐난다.

책은 >1월 그대 삶을 자비로 꽃피우라 >2월 보시를 하면 날마다 행복하다 >3월 선업의 씨앗을 심고 가꾸라 >4월 마음이 맑으면 국토가 청정하다 >5월 공양 올리는 마음 >6월 지혜는 행복한 삶의 주춧돌 >7월 고통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성취하는 길 >8월 견디고 참고 기다리면 운명이 바뀐다 >9월 뿌린 대로 거두리라 >10월 본 마음으로 돌아가라 >11월 운명을 바꾸는 기도 >12월 참회는 성불의 첫 걸음으로 구성됐다.

자비 보시 지혜 인욕 수행 정진 인과응보 기도 참회 등 불교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나누어 담아 불교입문서 · 법문자료집으로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편집됐다. 책에는 1년 12달 법문의 제목만 읽어도 좋을 만큼 스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녹아있다.

책에는 혜총 스님의 솔직 담백하고 진실한 성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눈에 띈다. 지체 장애자 시설에 봉사를 하러 갔다가 벽에 통칠

하고 침을 질질 흘리는 장애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그 예이다. 또, “신도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떠들어대는 내가 실은 이중인격자가 아닌가?”라며 참회하는 스님, 다른 사람 같으면 숨길 일을 드러내 놓고 반성하면서 이 일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나누려면 상대방과 일체, 한 몸, 동체(同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바치는 혜총 스님의 말씀은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혜총 스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면서 태양이 올리는 공양을 생각한다. 천지만물을 향해 비치는 햇빛은 태양이 대자연에 향해 올리는 거룩한 공양이다”라고 말한다.

스님은 “태양의 공양행이 없다면 만물은 하루도 살지 못한다. 태양 뿐 아니라 땅 허공 등 삼라만상 모두가 나를 위해 공양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에 고개 숙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참고 견디며 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라고 강조한다.

혜총 스님은 “참고 견디는 인욕이야말로 더 이상 죄업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공양의 공덕을 쌓게 한다”고 말한다.

책은 여러 곳의 포교현장에서 부처님과 선지식의 말을 빌려 자비와 나눔의 가르침을 설해 온 혜총 스님이 그마저도 독자들에게 회향하는 공양물이다. 조동섭 기자



2000년 중국불교 이끈 2100명이 이 책에



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  
한보광 · 임종욱 편저  
도서출판 이화 | 5만원

중국에 불교가 시작된 인도에서 그 꽃을 피운 한국과 일본을 잇는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중국불교에는 초기불교의 아련한 모습부터, 범인류적인 가르침으로 승화된 대승불교, 정신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선불교 등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다양한 모습으로 회향돼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불교 관련 인물 2100여 명의 생애와 업적을 3800매의 원고에 정리한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보광 스님(동국대 석학과 교수)과 임종욱 동국대 외래교수는 최근 <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을 펴냈다.

보광 스님은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를 개원해 고승의 문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옛 문헌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 임종욱 외래교수는 동국대에서 불교한문학을 연구한 인재이다.

책은 법고창신(法古創新: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을 위해 탁발해 온 중진학자와 신진 연구자가 마음을 모아낸 것이다.

보광 스님은 “불교문헌의 대중화를 위해 임종욱 외래교수가 중국사에서 활동한 인물의 생애를 정리한 목적인 연구서를 갖고 찾아왔을 때 너무나 반갑고 고맷다”고 말했다.

스님은 임종욱 외래교수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 확인과 보완할 범위, 문장 및 기술 방향 등을 도왔다.

책에는 중국 고대부터 청나라 말기까지 활동했던 인물 가운데 스님을 비롯한 중국불교사 관련 재가자를 인명과 생몰연도, 왕조 이름과 출신 지역, 자(字), 호(號) 등 순서로 기술 · 정리했다.

책은 일반적인 사전 형식에 따라 편찬돼 인명 표기는 극히 일부 제외하고는 한국식 한자독음을 표기했다. 지명과 관직명도 한국식 한자독음을 표기해 사용자의 편의를 도운 것도 책의 특징이다. 확인이 된 경우 인명에 대한 상세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참고문헌을 항목 맨 끝에 고딕체로 첨가했다. 호칭이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을 사용했고, 기타 호칭의 경우는 따로 표시를 두어 찾아보도록 했다.

또, 부록으로 <자호사전>을 포함시켜 인명과 관련 있는 자와 호, 법명(法名), 이름, 저서 등을 가나다순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조동섭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6~11/1 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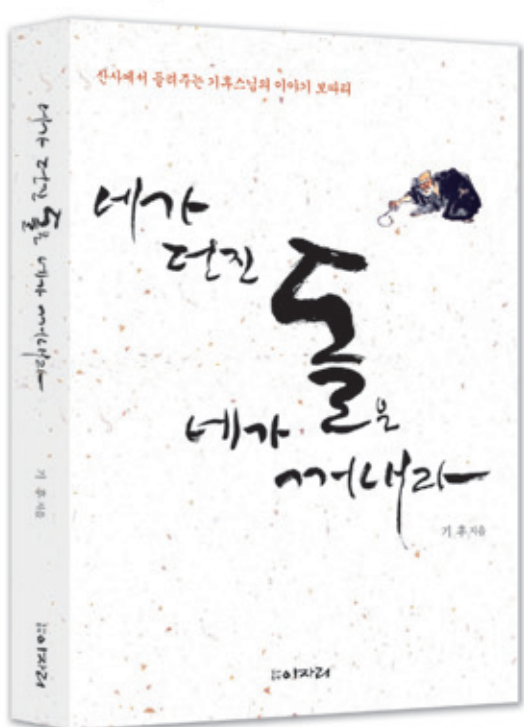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말씀일 것 없애 당장 부처로 살거나	도법	불광출판사
3	불영이 감춘 스님의 비밀 레시피	일운	담엔북스
4	산승불회	유철주	불광출판사
5	네가 던진 돌은 네가 꺼내라	기후	이지리
6	엄마수업	법륜	휴
7	뚫다 죽인 부처	박노자	인물과사상사
8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9	마음공부 첫걸음	김명우	민족사
10	소설 선	고은	김영사

※별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깊은 산중에서 들려주는 기후스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보따리

네가 던진 돌은 네가 꺼내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꺼내야 할 돌은 무엇인가?

기후스님이 풀어내는 20년간의 수행 이야기를 읽다보면 어느덧 내 안에 스스로 던진 크고 작은 돌들이 만져진다.

수행자의 삶이란 마음호수에 던져진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는 과정이다. 그것들은 꺼내면 꺼낼수록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찬다. 행자생활부터 승가대와 계방 선원, 그리고 6년간의 묵언수행 등 45년간 공부 외길을 걸어온 기후스님의 따뜻하고 훈훈한 선방이야기 고단하고 힘들어 보이는 행자생활과 치열하게만 느껴지는 선방 수좌생활조차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절로 흐르게 하고, 때로는 눈물을 찼금거리게 하면서 스님 특유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나긋나긋하게 펼쳐진다. 첫돌도 되기 전에 찾아온 천연두를 천형天刑처럼 가슴에 담고 정진했고 늘그막에 걸린 암에는 참회를 담아 수행했다. 그랬더니 천연두도, 암도 오고 간 데가 없어졌다. 그리고 스님은 웃으면서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꺼내야 할 돌은 무엇인가?”

스님이 계신 구마동 계곡은 20km나 외출로 나오는 깊은 산중이다. 장례가 하루만 내려도 그 순간부터 길이 끊기고, 깊은 눈이 오면 녹지 않아 3개월씩이나 소식이 단절된다. 그 혼한 손전환도 통하지 않는 깊은 산중 ~, 그러나 그곳에서 매미처럼 들려오는 스님의 작은 목소리가 우리들의 매미들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다.

책 내는 마음 도서출판 이자리는 언제나 맑고 깨끗한 마음의 소리를 담아냅니다.

